

## 버릴 것과 얻을 것

서 경 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 Safeguards Operation C



여름이다. 찌는 듯한 더위와 끈적끈적 살갓에 달라붙는 듯한 불쾌감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가족들과 어디엔가를 가 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등 우리 마음을 그나마 설레이게 하는 휴가철이다. 아이들은 긴 방학을 어떻게 재미 있고 즐겁게 보낼까 기대에 차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가벼운 주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짧은 휴가를 효과적으로 보낼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휴가에 대해 너무나도 야박하다.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휴가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아마도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직장인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일 것이다.

이곳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필자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휴가일수가 연간 6일이었다는 얘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더구나 십 여 년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6일을 다 써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 놀라 까무라치는 모습으로 쳐다본다. 어떻게 살아 있느냐는 듯한 눈빛들이다. 그나마 한국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지한파(?)들은 한국인들이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말로 필자를 옆에서 거들어 주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한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세계 대전 후 피폐해진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이, 일본보다 더 열악한 상태의 우리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낸 것은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공로이다.

이제 세계 10, 11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만일 일제의 침탈과 한국 전쟁 등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있고 우수한 정치력의 이끄심을 받았다면 아마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 되어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우수하다. 이것은 숫자나 비교표 등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겠으나, 상당히 공정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이후의 판단이므로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에, 휴가를 가진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는 것은 사치이고 휴가는 노는 것, 즉 일 안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동격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와 온갖 어린이 동화책에 게으른 베짚이와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이야기가 단골로 나왔겠는가? 회사에서도 며칠 안되는 휴가를 다 썼다면 무능하고 게으르며 요령 피우는 직원으로 인식이 되어졌고, 휴가를 다 못쓰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유럽에 와 살면서 겪어보니, 이곳 사람들은 휴가가 참으로 많다. 이렇게 놓고 언제 일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노는 날이 많다. 그런데 필자도 한국에서 살면서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지 휴가를 노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놀면서 언제 일하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휴가를 그저 노는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며칠 안되는 휴가 일수와 아이들의 방학, 그리고 휴가는 꼭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그것도 유명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가야 한다는 개발 도상국형 절박감이 어우러져 아직도 해운대에 백만, 경포대에 수십만 인파라는 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그때를 아십니까’ 시절에는 여름에 얼굴이나 몸이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상태로는 길거리에 못 다니고 친구들을 못 만났다. 시커멓게 탄 얼굴이 부의 상징이었고 돈이 없어 바캉스(?)를 못 가는 것이 창피한 그런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의식이 한국 사회를 휩쓸면서 휴가가 단순히 노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명소를 찾지 않고 조용한 곳을 찾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혼잡한 유명 국내 관광지를 찾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다. 외국의 유명한 곳을 찾아 한국과는 다른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책에서만 보던 외국의 역사를 직접 접하고 유명 예술인의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필자도 이번 여름 2주간의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남부 독일, 스위스와 북부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그런데 올해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유럽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뽑힌 노이슈반스타인 성이나, 스위스의 융푸라우요흐가 있는 인터라켄 등에는 필자가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았다(집사람은 강릉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짧은 휴가일수로 인해 젊은 사람들만이 몇몇 보일 뿐 대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고, 중년의 여인네들이 주축을 이룬 단체 관광객들도 꽤 보였다. 필자는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에 외국으로 배낭 여행을 다니는 것과 어학 연수가 보편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부 기업이 신입 사원 채용시에 어학 연수를 받은 학생을 우대하고 면접을 할 때에는 배낭 여행에서 얻은 것과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는 등의 질문을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어학 연수와 배낭 여행이 이력서에 꼭 적어 넣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눈여겨 보면 한국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다른 점이 꽤 있다. 먼저 외국 학생들은 거의 혼자 다니는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몰려다닌다. 외국 학생들은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큰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한국 학생들은 배낭이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휴가를 그저 노는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의식이 한국 사회를 휩쓸면서 휴가가 단순히 노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명소를 찾지 않고 조용한 곳을 찾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야기가 약간 빛나지만, 배낭 이야기가 나왔으니 가방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근에 세계 어디를 가나 동양인 관광객들이 참 많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한국 사람과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일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늘어 유명 관광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비율이 5.5:3:1.5 정도 된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유명 관광지를 모두 섭렵했기 때문에 젊은 일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노인 단체 관광객들만이 보인다.

그런데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국적의 구분이 가능했다. 중국 남자들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들도 유행에 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 사람들은 명품이지만 튀지 않는 색상을 주로 입고, 한국 사람들은 명품에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옷차림만 보아서는 국적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열 굴도 흰하다. 굳이 여자들을 구분해 보자면 일본 할머니들은 창이 작고 빙 둘러져 있는 모자를 쓰는데, 한국 여자들은 창이 크고 앞쪽으로 넓은 모자를 주로 쓴다. '6시 내 고향' (KBS의 한 프로)에서 모내기할 때 쓰는 그런 모자다. 또 거의가 선글라스를 쓴다. 반면 중국 여자들은 선글라스에 양산을 쓴다. 동양 여자들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보면 요사이 어떤 제품이 유행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의 여행용 가방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재질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세워져 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공항에서 동양인이 여행용 가방을 옆으로 밀며 가고 있다면 일본인이 틀림없다.

다시 학생들의 여행 얘기로 돌아가 보자. 외국의 길거리에서 보면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책을 손에 들고 있다. 물론 관광 가이드 책이다. 그런데 기차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진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 학생들은 소설책을 읽지만 한국 학생들은 관광 가이드 책을 보거나 잠을 잔다.

기차역에서 보면 많은 여학생들이 원피스에 뒤가 뾰족한 슬리퍼를 신고 큼직한 여행용 가방을 끌고 우아한 모습으로 여행을 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필자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란다. 필자의 눈빛이 중년 남자의 음침한 눈빛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왜 놀라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의 저녁 풍경을 소개하겠다.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다니다 보니 굉장히 떠든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끔찍하다. 욕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대부분 학생들의 이야기 주제가 명품 이야기이다. 어떤 제품이 좋고, 어디어디에서는 얼마인데 여기에서는 얼마이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가운데서도 그런 한국말들이 똑똑하게 필자의 귀에 들리는 것을 보니 필자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은 쓸 만한 것 같다.

백조의 성이라 불리는 남부 독일의 노이슈반스타인 성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영어로 설명을 하는 가이드를 따라 이 방 저 방을 다니던 중 필자가 가이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가이드가 필자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 멈춰 섰고 그러다 보

니 우리 그룹이 모두 멈춰 서게 되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아저씨,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라고 한다. 솔직한 학생이다. 어떤 여학생은 친구에게 "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하고 속삭인다. 필자가 빙 둘러보니 대부분 탄성을 짓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몇은 알아듣는 표정이다. 하지만, 영어 공부나 어학 연수니 하며 부모의 등골을 빼먹은 아이들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상한 것은, 길을 가다가 동양 사람들을 마주치면 필자는 대부분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확실한 국적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말로 인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 그래도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는 데에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꼭 답례를 한다. 어떤 사람은 깊숙이 인사를 하며 일본말로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을 한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정으로 멀뚱히 쳐다보기도 한다. 아마도 필자가 중국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필자를 일본인으로 착각을 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번은 유명하다는 루이뷔통 가게에서 있던 일이다. 가게에 들어서니 흰색 반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흰색 캡을 쓴 늘씬한 모습의 두 남녀가 카운터에서 뒷모습을 보이며 종업원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방들이 수백에서 수천 유로의 가격표를 붙이고 전시되어 있었다.

필자가 집사람에게 "이건 뭐로 만들었는데 이다지도 비싼 거야? 그냥 가죽 아닌가?"라고 얘기한 순간, 카운터 쪽에서 "어머."하는 우리말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필자도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니 여자가 우리를 쳐다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남자 손을 잡아끌어 그냥 나가 버렸다. 종업원은 놀라 우리를 쳐다 보았다. 필자도 놀라 몸을 돌려 거울을 보았더니 평범한 얼굴의 한국인이 거울 속에 치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필자가 비판적으로 글을 쓴 것 같지만, 마음 속으로는 꽤 자랑스럽다. 과거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만나는 여행객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쯤이나 일본인들처럼 해외 여행을 다녀보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고 또한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들이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아직도 각박한 것 같다. 학생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직장인들은 시간에 쫓겨 다닌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여유있게 보아야 할 것들을 그냥 지나친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를 못하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그만큼 누릴 수가 없다. 볼거리가 가득한 곳을 알지도 못한 채 지나치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아쉽다.

또한 여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동도 자유롭게 만든다. 그야말로 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풀어질 때 풀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양식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간에 많이 버리고 많이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제는 9박 10일 12개국 주과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록도 기록 나름이니까. ☺

지금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고 또한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들이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아직도 각박한 것 같다. 학생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직장인들은 시간에 쫓겨 다닌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여유있게 보아야 할 것들을 그냥 지나친다.

여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동도 자유롭게 만든다. 그야말로 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풀어질 때 풀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양식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